

# 새만금 십자형 도로, 미래를 향해

## 개통 1주년 맞아...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인)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교통의 핵심축인 동서·남북의 십자형(十) 간선도로를 완전 개통한지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새만금 동서·남북 십자형 도로의 완전 개통을 통해 교통·물류 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됐다. 이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과 맞물려 기업의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간선도로 개통에 따른 기업 투자협약도 누적 실적으로 남북도로 1단계 개통 시점인 2022년 12월에 57건, 2조 7,000억원, 남북도로 2단계 개통시점인 지난해 7월에는 64건 6,333,000억원, 지난해 12월에는 75건, 11조6,000억원을 달성했다.

새만금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새만금 동서·남북 십자형 도로는 광역 간 교통의 대동맥으로서 내부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에서부터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까지 연결되

는 16.5km의 왕복 4차선 구간으로, 총 사업비 3,623억 원이 투입되었다. 2020년 12월에 개통되어, 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15분대로 연결하여 물류 수송의 주요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남북도로는 새만금 1권역(새만금 산단)에서 3권역(관광 레저용지)까지 연결되는 27.1km의 왕복 6~8차선 구간으로, 총사업비 1조 264억 원이 투입되었다.

2023년 7월에 전면 개통되어, 새만금 내부와 군산 부안 등 주변 도시를 20분대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자리 잡았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남북 십자형 도로 외에도 새만금 내부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간 연결도로(2030년 개통 예정) 등 추가 교통망 확충도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 레저용지 등 핵심 거점을 왕복 6차로로 연결해 내부 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환경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동서·남북 십자형 도로 개통으로 인한 기업 투자가 실질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 등 핵심 기반 시설도 적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5만 톤급 선박과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부두를 포함하여 총 9개 선석으로 건설되며, 2026년에는 크루즈 겸용 항을 포함한 2개 선석을 우선 개항하여 새만금 배후 산업을 지원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동북아 및 동남아에 이르는 국

제선 운항으로 새만금의 글로벌 시장 전환을 선도한다.

새만금 인입 철도는 국가산단과 국제공항, 스마트 수변도시, 신항만을 연결하여 물류량 처리 및 도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한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인 청장은 "새만금 동서·남북 십자형 도로 개통 1주년을 발판 삼아,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3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민생안정·노사협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중기중앙회, 사회적 대화 위한 국회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3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민생안정·노사협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원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진선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다양한 사회 갈등과 국회가 정쟁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과 중소기업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통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기문 회장은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매우 큰 성과였다"면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쉽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 중소기업들은 종대해제처벌법, 주주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 전개공, 익산 부송4지구 미분양 택지 수익계약 매각 추진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미분양택지를 선착순 수익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단독주택용지 20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상업용지 7필지이며, 익산 부송동 일대의 뛰어난 개발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매우 매력적인 입지를 자랑한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 294,281㎡ 규모로 지구 내 3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해 있어 개발사업 완료 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부송4지구는 영등동과 약 10분 거리, 익산역과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공사 담당자는 "익산 부송4지구는 기반시설 확충과 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도시 가치를 높일 것"이며, "환지방식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통망 확충과 주변 상업시설 확대에 따라 투자와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옥기 기자

## 전북 전북,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 신성건설 8년만에 도내 1위 기록

대한건설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4년도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공시 종합업체 수는 전북 1,130개사이고 전국은 1만 7,547개사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31일 발표된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전년도 2위를 기록한 (주)신성건설(이용호 대표)이 3,078억원을 기록하며 8년만에 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1위였던 계성건설(주)(2,362억)가 2위, 전년도 5위였던 (주)군장종합건설(1,524억)이 3위를 차지, 4위는 (주)제일건설(1,317억)이 전년 순위를 유지하였으며 삼일(주)(664억)이 9위로 처음 'TOP 10위권'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지난해 50위권 밖에 있었던

금록토건(주)(61위-88위), 렉스건설(주)(85위-111위), (주)리드(51위-44위), (유)쌍마건설(102위-47위), (주)태안건설(56위-48위), 보성건설(주)(68위-49위)이 새롭게 50위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0위권의 시평액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SOC물량 부족과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상업 및 업무시설 건설 공사의 실적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기 기자

## 전전협 전북, 2024년도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해동씨앤에이, 도내 1위 기록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31일 도내 3,275개 전문건설업체(등록업종 5,274개)에 대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주)해동씨앤에이(대표 양승연)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2억 582만원)이 차지했다.

2위는 (주)유립개발(대표 최영진)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82억 743만원)이 차지했으며, 3위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법중)의 철강구조물공사업(608억 3776만원), 4위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557억 9589만원), 5위 토성토건(주)(대표 김새봄)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억 3701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그리고 신인도평가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금년 공시된 2024년 시공능력평가는 8월 1일부터 관련 제증명 발급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가 가능하며 내년 7월 31일까지 효력이 가진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동서·남북 십자형 도로 개통으로 인한 기업 투자가 실질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 등 핵심 기반 시설도 적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은행,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참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창군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순창군이 선정한 만 18~49세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순창군에서 납입금의 두 배를 지원하는 청년정책 사업이다. 이를 통해 모든 종자통으로 청년들의 재정적 자립 및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전북은행과 단독 협약을 통한 상품 출시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335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올해는 594명을 선정하였고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금액은 월 5만 원 또는 15만원으로 가입 시 순창군에서 2년 동안 매월 각 10만원과 30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15만원씩 적립했을 경우 본인



의 적립금 최대 360만원에 순창군 지원 금액인 최대 72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1,080만원과 전북은행이 제공하는 은행이자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지원사업을 통해 순창군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